

제목: "그 후가 더욱 창대하리라"

말씀: 욥기 8장 1-7절

욥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 듣고자 했으며 답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찾아 왔지만 욥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했지만 욥에게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전한 이야기 중에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복 된 인생이 됩니까?

- 1) 하나님을 _____고 합니다. (5절)
- 2) 하나님께 _____하라고 합니다. (5절)
- 3) _____하고 정직하라고 합니다. (6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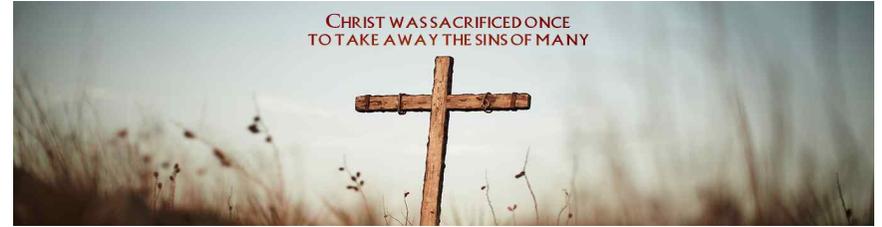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욥기 8장 1-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obs 8: 1-7 구약 768 페이지 President
- 말씀 "그 후가 더욱 창대하리라"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abundant blessing from God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할머니의 사랑)

오늘은 갑자기 오래 전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 나에게 특별한 할머니였다. 어려서부터 함께 살다시피 하셨고 많은 시간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였다.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말린 것을 보약과 같이 나에게 삶아 먹이셨고, 늘 사과와 고구마를 손가락으로 파서 본인의 입에 넣었다 꺼내어 나에게 먹이신 분이시다. 지금 생각하면 어의가 없고 더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때에는 그것이 보통이었다. 열마는 함께 지내다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는데 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난다. 그 정도로 나와 헤어지기가 섭섭하셨던 것 같다.

그러다가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또 다시 한 동네에 살게 되었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지셔서 홀로 생활하시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 하루는 우유를 한 통 사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다가 우유 한 통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셨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시간이 넉넉했던 내가 할머니 댁을 방문하며 일어서시지 못하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 후 골절상은 회복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나도 할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가 생각났던 것이다. 그래서 얻은 답은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저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필요할 때에 언제나 곁에 다가가갈 수 있는 거리에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 된다. 그런 생각 가운데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나를 늘 존중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며 길을 가더라도 나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알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늘 나의 편에 계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친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하나님은 주목하시겠다고 하신다. 주목하신다는 뜻은 두고 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까?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 합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최윤서 장로님 댁으로 이동해서 식사와 친교를 나눕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최 장로님 가정께 감사합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